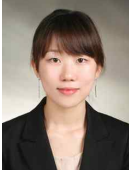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치며



허 문 희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석수료



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생 허문희입니다. 고시계에 글을 쓰려니 2008년 2월 신림동에서 공부하다 잠시 쉴 겸 고시계를 펼쳐보던 제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하는 것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제가 고시계에 보낼 글을 쓰고 있네요. 나중에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도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I.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 글을 부탁받고 지금까지의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제 아주 어렸을 적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지금은 옳고 없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인천지방법원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 7살 때까지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이사 와서 3년을 더 살았으니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저를 잘 보신 것인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판사가 되면 잘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막연히 법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저와 언니를 충분히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예전에 살던 주안동 집터에 집을 짓고 1층에서 '인천버섯집'이라는 음식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판사, 검사를 가까이서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자매를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야겠다고 나름의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나중에 보니 인천에서도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가족은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작 저는 언제 전학 가는지도 몰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었지요.

그때 저를 두렵게 했던 낯선 서울과 당시 뉴스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던 ‘왕따’라는 용어, 서울에들은 각쟁이라는 소문 등은 곧 괜찮아졌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인천의 제가 20평, 방2개의 작은 집에 미처 풀 곳을 찾지 못해 방 한편에 박스를 쌓아두고 사는 안평범한 목동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살았던 5년 내내 괜찮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볼 용기도 없이 제 발끝만 보면 저와 우리 가족이 왜 인천을 떠나 여기에 와있는지만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건다 고개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시험 1차, 2차를 거쳐 어느새 연수원 수료를 눈앞에 둔 지금에 이르러 있는데요.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저희 자매를 위해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보다도 더 묵묵히 걸어오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분이 계신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디신다면 그 시간은 곧 지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I. 사법연수원에서의 생활

1. 떨리는 첫 만남

지난 2010년 3월 일산에서 사법연수원 41기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강의실에 모여 약 70명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느꼈던 낯설음과 그 뒤 세미나실에 조단위로 모여 이름 외우기 게임을 하던 빨춤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수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연수원에서 내가 경쟁하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 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떨리는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2. 즐거웠던 순간들

-입소초기의 각종 행사

그러한 긴장감은 곧 즐거움으로 바꼈습니다. 우선 입소초기에는 각종 행사들로 공부걱정을 할 새가 없습니다. 입소한 첫 주 주말에 있었던 반옴티는 잘 짜인 진

행과 맛있는 음식으로 반원들 및 교수님들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었고, 곧 시작될 체육대회의 전단계인 연습, 예선경기, 회식, 응원연습 등 반행사와 각종 조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대망의 체육대회

그리고 대망의 체육대회까지. 모두들 체육대회까지만 놀겠다는 다짐을 하며 혼신을 다해 놀았습니다. 이때는 사범연수원 전체가 새로운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한 즐거운 자리로 들쭉이는 때라 다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걱정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자율학습기간

그리고 1학기 시험이 끝난 뒤 황금 같은 여름자율학습기간(일명 방학)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행을 가는 연수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산에 남아 2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학기 중의 공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스터디를 핑계로 조원들과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놀고 공부는 조금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고시생 때와는 달리 월급이 있기에 더 풍족했던 방학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2학기에도 수학여행이라는 휴식처가 있습니다. 힘든 2학기의 시작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기쁨이지요. 통상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힘든 공부 중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습니다.

-졸업여행

그리고 4학기 시험을 마치고 떠나는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 모두 앞날에 대한 걱정을 뒤로 미룬 채 2년 동안 동고동락 했던 조원들과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의 더 이상의 시험은 없다며 마냥 신나면서도 우리에게 더 이상의 애틀도 없지 않을까 하며 아쉬운 여행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시간

그러나 무엇보다 즐거웠던 시간은 연수원 생활의 힘든 점인 공부를 힘들지 않

게 해줬던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서로 격려해주고 시험이 임박해서도 만나면 웃게 했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힘든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연수원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든든함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3. 긴박했던 시험시간

앞서 연수원의 생활의 즐거운 일들을 얘기 했는데 연수원 생활을 얘기하자면 시험 얘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수원의 시험범위는 계속 누적되므로 2학기, 4학기 시험은 범위가 참 많습니다. 과연 시험 전날 다 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 마지막 시험시작 직전까지도 초초하게 페이지를 넘기게 합니다.

그리고 연수원 시험은 크게 2시간짜리와 5시간 혹은 그 이상의 기록시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시간짜리 시험은 여러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고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험입니다. 시간은 2시간이지만 난이도는 낮지 않기 때문에 시간안배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기록시험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역시 막판에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메모할 시간과 답안작성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한번 일어날 여유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갈 수는 있지만 시험이 어려우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2학기 첫 기록시험이 끝나고 허리가 너무 아파 다음시험 공부도, 잠도 자지 못한 채 끄꿍대면서 비로소 그동안의 긴 수험기간동안 단 한번도 5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극도의 긴장감과 초조함 속에서 온몸을 불사르게 하는 시험시간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나무와 바람, 햇살마저 저를 실실 미소 짓게 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시험이 끝난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외치면서요.

4. 연수원에서 공부 잘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수원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 민망하네요.

우선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모인 연수원에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연수생은 없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역시 기록공부까지 모두 해온다면 1학기 성적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교재공부만으로는 연수원 공부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정도는 연수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큰 차이 없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1학기에 주요실무과목 성적은 15%만 반영되어 2학기 점수와 합산된 뒤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2학기까지 연수원에서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주요실무과목을 복습 없이 인터넷강의로 듣고 입소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요인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수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0명의 연수생 모두에게 나뉠의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수원 공부는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연수원에서는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열심히 공부하는 연수생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따라잡을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만회해야 하는데 다들 계속 공부를 하니깐요. 그래서 1학기 성적이 2학기, 4학기에 많이 오르기 어렵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물론 딱 떨어지기는 쉽다고 하지요.) 따라서 평소부터 꾸준히 공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앞서 입소초기에는 각종 행사들로 바쁘다고 말씀드렸지만 연수원 진도를 복습할 시간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 경우에는 복습을 제때 했을 때 각종행사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맡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III.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쓰기로 하고 여행을 떠났다 마감 직전에 돌아와 너무 두서없는 글이 되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2008년 신림동에서 고시계를 펼쳐보던 저에게 쓰는 마음으로 썼으니 너그럽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힘든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좋았던 기억만 떠올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2년간의 추억이 담긴 일산의 사범연수원과 호수공원, 마두역, 웨스턴돔 그리고 그곳에 늘 함께 있었던 41기 동료들과 교수님들을 모두 이제 한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모두들 힘들었지만 곳곳이 버티고 무사히 수료하니 어디에서도 모두 잘 하리라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